

【 해외금융 뉴스: 일본 】

일본은행, 추가 금융완화 검토

□ 급격한 엔화강세로 일본경제의 회복세 둔화 우려가 확산되자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조만간 추가 금융완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짐.

- 엔-달러 환율은 최근 미국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 확산과 함께 일본은행이 급격한 엔고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15년 만에 1달러 당 80엔대 중반까지 급락한 상황임.
- 일본은행은 엔고 지속이 주식시장 침체로 이어지고 있고, 원가상승으로 수출기업의 실적 및 설비투자 부진 등 내수경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오는 9월 열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융완화 조치를 검토하기로 함.

□ 엔화강세 지속을 막기 위해 공개시장조작 확대 및 국제사회의 협력이 배제된 정부 단독의 외환시장 개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행은 엔고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일본은행이 연 0.1% 고정금리(3개월물)로 민간 금융기관에 투자 중인 공개시장조작* 규모를 당초 목표치인 20조엔에서 30조엔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출 만기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다양한 통화완화 정책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짐.

*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중앙은행이 국채 및 기타 유가증권 매매를 통해 금융기관과 민간의 유동성을 증감시켜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는 통화정책수단

- 또한 최근 재무장관도 엔화강세가 지속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조만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는 등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함.
- 그러나 현재 주요 선진 7개국(G7)이 중국의 환율조작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현재의 통화 약세에 대한 수혜(수출 증가 등)를 받고 있다는 사실들 때문에 국제적 협력체제 하에서의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FujiSankei Business I, 8/24)